

안녕하세요

미나엄마입니다. 사건요약은 생략하고 그 사건이 나의 인생을 바꿔 놓았고 모든것을
영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할수
없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는 예쁜 두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사고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둘째딸은 브레인 장애를
입고 평생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신문에서 광고를 보고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사건을 듣고 해결을 해주시는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변호사은 5년 정도의 긴 기간동안 사건을 처리하시는데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으로 성심을
다하셨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섬세하심이 무엇보다 믿고 맡길수 있는 신뢰를 주셔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도 돌이킬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기에 성과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변호사님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이런일을 겪는 분이 계시면 저희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21일 2010 최희자